

- 주요 뉴스: 미국 '21년 무역적자, 사상 최대 공급차질 완화 중국의 무역합의 마하행 시사
 - 미국 '21년 가계부채, '07년 이후 최대폭 증가. 소비 확대 등이 배경
 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
 - 중국 인민은행, 공공임대 주택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양호한 기업실적과 1월 소비자물가 전망 등이 영향
 주가 상승[+0.8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상승[+5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금융 및 기술 관련주 강세와 저가매수 유입 등에 기인
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부진과 소비자 관련주 상승 등이 엇갈리며 보합 마감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ECB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이 배경
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2%, 0.4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긴축 강화 전망에 '19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7.5원, -1.2원) 0.1% 하락, 한국 CDS 하락

2/8일					2/7일				
전일대비					전일대비				
주가	미국	4,521.5	4,483.9	0.8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96%	1.92%	5bp
	유럽	465.34	465.28	0.01%		독일	0.27%	0.23%	4bp
	중국	3,452.6	3,429.6	0.67%	CDS 5y	한국	26bp	27bp	-1bp
	일본	27,285	27,249	0.13%		중국	52bp	54bp	-2bp
	한국	2,746.5	2,745.1	0.05%	위험 지표	EMBI+	-	414	-
환율	달러지수	95.61	95.40	0.22%		VIX	21.44	22.86	-6.21%
	유로화	1.1415	1.1442	-0.24%		WTI유	89.36	91.32	-2.15%
	엔화	115.55	115.10	-0.39%	원자재	구리	447.1	446.3	0.18%
	위안화	6.3665	6.3623	-0.07%		금	1,825.9	1,820.5	0.30%
	원화	1,197.7	1,200.7	0.2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'21년 무역적자, 사상 최대. 공급차질 완화 중국의 무역합의 미이행 시사

- 작년 무역적자는 전년비 27% 늘어난 8591억달러를 기록. 이는 기업들이 소비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을 통한 재고 확대에 나섰기 때문. 또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서비스부문(여행, 교육 등)의 수출 부진도 일부 영향
- '21년 12월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공급차질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. Capital Economics의 Andrew Hunter는 작년 연말로 갈수록 주요 항만에서의 물류 처리가 개선되면서 수출입 모두 증가했다고 평가
- 한편 '21년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전년비 14.5% 증가한 3553억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 규모였던 '18년의 4182억달러 대비 큰 폭 감소. 이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감소의 영향이 크지만,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도 이전에 비해 적은 편
-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정한 목표의 57%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. 블룸버그에 따르면,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에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도록 요구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'21년 가계부채, '03년 이후 최대폭 증가. 소비 확대 등이 배경

- 뉴욕 연은 조사에 따르면, 작년 가계부채는 1조달러 증가. 이번 결과는 가계의 주택 및 자동차 매입 확대 등이 주요 원인. 신용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, 이는 소비행태가 팬데믹 사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

■ 미국의 '23년 원유 생산, 당초 예상치 상회할 전망. 유가 상승 등에 기인

- 에너지정보국(EIA)에 따르면, 내년 원유 생산은 일일 평균 1260만배럴에 이르러 기준에 예상했던 수준(1241만배럴)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. EIA는 금년 중반부터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 등으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

■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, ECB 통화정책은 거시 경제지표 등을 반영할 필요

- 데코스 총재는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할 경우 최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향후 역내 인플레이션 수준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, ECB의 통화정책 전환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. 한편 최근 증시는 ECB의 매파적 성향 강화와 관련하여 반응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피력

■ EU, 반도체 생산 확대 추진. '30년까지 대규모 투자에 나설 계획

-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 공급 부족 대응과 미국 및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EU 반도체칩법을 제안. 해당 법안에 따르면, '30년까지 430억유로 투자를 통해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역내 비중을 20%까지 늘릴 전망. 현재는 9% 수준

■ 중국 인민은행, 공공임대 주택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

- 시민들에게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 더 이상 대출규제를 적용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발표. 이번 결정은 당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일정 수준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의미

■ 일본 '21년 12월 가계소비지출, 5개월 연속 둔화. 향후 전망도 불투명

-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은 전년동월비 0.2% 감소. 이번 결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기인. 노린추킨 연구소의 타케시 미나미는 최근 실질 급여증가율의 부진을 고려한다면, 소비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

■ 러시아, 푸틴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는 오보

- 크레믈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프랑스와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 관련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언급.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결되어야 하며 이번 회담은 추가적인 대처의 기초가 된다고 논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: 97.1, '21년 12월(98.9), 예상치(-)
- 영국 1월 소매매출(전년동월비): 8.1%, '21년 12월(0.6%), 예상치(0.7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1년 12월 도매재고, 독일 '21년 12월 무역수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의 인플레이션, 임금·물가의 악순환 구도로만 보기는 곤란 - The New York Times**
(Inflation Is Not a Simple Story About Greedy Corporations)
 - 최근 미국 정치권 등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인 연쇄적 상승을 언급. 이러한 시각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주식시장과 소비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
 -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는 통화량 증가와 공급망 혼란 등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. 이에 기업의 가격 전가와 노조의 임금인상으로 물가 오름세를 부추긴다는 견해는 경제주체 간 신뢰와 성장여력을 훼손시킬 우려
- **연준 금리인상의 가시화, 신흥국 영향은 우려와 희망이 혼재 - WSJ**
(Developing Countries Brace for Impact From Fed Rate Increases)
 -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미국 금리인상으로 예상되는 부채비용 증가, 통화 약세,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.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신흥국은 새로운 리스크와 긍정적 요인에 직면
 - 우선, 위험 요인은 연준의 통화긴축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. 연준의 강력한 긴축은 신흥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실행한 선제적 대응을 무력화시킬 가능성.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각국은 자국 상황에 적합한 추가 조치에 나설 필요
 - 그러나 전세계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한 미국 경제가 안정화 된다면, 신흥국의 고물가 우려 및 정책 리스크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**미국 경제, 무분별한 정부지출 확대를 경계할 필요 - 블룸버그**
(Populism May Be Losing Its Influence Over Markets)
- **영국 경제, 고물가와 세금인상 전망 등으로 둔화 압력이 증가할 소지 - Financial Times**
(Economic sorrows come in battalions)
- **ECB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, 유로존 경제회복이 선결 과제 - 블룸버그**
(Bond Market Tantrum Should Give ECB Moment of Paus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